

증권사별 해외주식 수수료 비교표 (2025 년 기준)

국내 주요 10 대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환전 우대율, 이벤트 조건을 최신 정보(2025 년 기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1. 해외주식 거래 개요

해외주식 투자는 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거래소 이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이벤트 참여 시 대부분의 증권사는 0.07~0.1%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환전수수료는 환율 스프레드로 1 달러당 0.25~1.0 원 수준입니다.

이 문서는 국내 점유율 상위 10 개 증권사를 기준으로 최신 수수료 및 환전 혜택을 비교한 것입니다.

2. 주요 증권사 비교표 (미국시장 기준)

증권사	기본 매매수수료	환전수수료 / 우대율	이벤트 적용 시 수수료	특징
미래에셋증권	0.07%	환율우대 100% (1 년)	0.07% 또는 무료 (신규고객)	대형사, 수수료 인하폭 큼, 글로벌 리서치 강점
한국투자증권	0.09%	환율우대 90%	0.07%	ETF 자동환전 기능, 장기 이벤트 제공
NH 투자증권	0.09%	환율우대 100%	0.07%	모바일 중심, 환전이벤트 상시 진행

삼성증권	0.25%	0.5 원	0.09%	리서치 강점, PB 서비스 중심
키움증권	0.07%	환율우대 95%	0.07%	초보자용 MTS 편리, 이벤트 다양
KB 증권	0.1%	환율우대 100%	0.08%	해외소수점 거래 가능, 앱 편의성 우수
신한투자증권	0.25%	환율우대 100%	0.0% (이벤트)	해외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제공
토스증권	0.1%	0.25 원	0.08%	간편앱 기반, 환전 간소화
메리츠증권	0.09%	환율우대 100%	0.0%	신규·휴면고객 대상 0% 수수료 이벤트
IBK 투자증권	0.12%	0.5 원	0.09%	중소형 고객 중심, 기본 수수료 안정적

3. 수수료 구성 요소

- ① 거래수수료: 매매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 (예: 0.07%)
- ② 환전수수료: 원화-달러 환전 시 환율 스프레드 (보통 1 달러당 0.25~1.0 원)
- ③ 거래소 이용료: 미국 기준 약 0.0021%, 기타 국가별 상이
- ④ 세금: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 만 원 초과 수익 시 22% 부과

4. 투자자 유형별 추천 증권사

단기매매·빈번한 거래자 : 미래에셋증권, NH 투자증권, 키움증권 — 낮은 기본 수수료와 이벤트 폭이 큼

장기보유 투자자 : 삼성증권, KB 증권 — 리서치 자료와 환전 편의성 중심

ETF·분산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 자동환전 및 ETF 리밸런싱 기능 지원

간편 투자자 : 토스증권 —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낮은 진입장벽

신규 또는 휴면계좌 투자자 : 메리츠증권 — 0% 수수료 이벤트 활용 가능

5. 유의사항 및 활용 팁

- 대부분의 수수료는 이벤트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 계좌 개설 후 6개월~1년 동안 우대가 적용됩니다.
- 환전 수수료는 이벤트 시 100% 우대가 일반적이지만, 만료 후에는 기본 1달러당 0.5~1.0 원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 해외 ETF 또는 ADR 거래 시 거래소별 부과세(0.002~0.005%)가 추가 발생합니다.
- 이벤트 종료 시 자동으로 기본요율로 전환되므로 만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달러예수금을 보유해두면 재환전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결론

2025년 현재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이벤트 경쟁이 치열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고, 장기 투자자는 환전우대율과 고객지원 품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단기적 차이보다 장기 거래빈도와 관리 편의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